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 ◎ 이주민을 대변하는 신문
- ◎ 이주민선교사, 선교단체, 지역교회를 아우르는 신문
- ◎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관련 전문 정보와 소식의 플랫폼

제 9 호 | 2022년 3월 1일 | 월간 발행



예배와 노동, 선교와 사업 그 성속(聖俗)의 경계선

야마모리 박사, “BAM은 21세기 선교 상황에서 특별한 전략”

지난 2004년 로잔운동(이하 로잔)이 주최하고, 130개국에서 온 15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가 참석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포럼'이 태국에서 열렸다. 포럼은 "온 교회,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1세기에 주요한 서른한 가지의 세계적 이슈를 화두로 삼았다. 그중 하나가 'Business As Mission'(이하 BAM)이다. 로잔의 상임고문 테드 야마모리 박사는 "BAM은 21세기 선교 상황에서 특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BAM은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성경적 원칙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이다. 로잔의 BAM 상임위원 주앙 모르도모(João Mordomo)는 BAM이 "전 세계에 영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일구기 위해 사역 기

BAM 전문가 닐 존슨(Neal Johnson)은 "세계화로 인해 BAM은 국내외의 두 개 이상의 문화가 교차하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선교는 문화와 문화가 교차하고, 사역과 사업이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취지와 목적이 교란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테드 야마모리 박사는 "관련 용어의 범람과 복잡한 정의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지는 BAM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구체적인 BAM 사례를 취재, 특집기획으로 다룬다.

회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다국적 연결고리가 되어 나라와 나라, 공동체와 공동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한다. 따라서 BAM은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

비즈니스 선교와 디아스포라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교'의 구성요소가 되어 왔다. 성경에는 디아스포라 신분으로 BAM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있다. 아브라함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아버지인 동시에 디아스포라 종족의 아버지였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동시키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아브라함은 가족, 은, 금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창 12:16, 13:2). 또한 그의 삶은 사업의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구속하시고 축복하

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본보기가 된다.

사도 바울은 비즈니스 선교의 또 다른 모델이다. 사도행전 18장 1~4절은 그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과 그의 교회 개척 팀은 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미전도 종족과 디아스포라를 향해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문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업을 활용하

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BAM 전문가 닐 존슨(Neal Johnson)은 "세계화로 인해 BAM은 국내외의 두 개 이상의 문화가 교차하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선교는 문화와 문화가 교차하고, 사역과 사업이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취지와 목적이 교란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테드 야마모리 박사는 "관련 용어의 범람과 복잡한 정의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지는 BAM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구체적인 BAM 사례를 취재하였다. 또한 국내 이주민의 BAM 참여 실태, 돈의 성경적 이해와 경제관, BAM의 선교적 성취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13페이지에서 계속





[기고] 비즈니스와 복음 전도의 도구

글 이경원 선교사



온누리M센터 인도네시아 담당 목사
스타트리협동조합 대표이사

온누리M센터의 스타트리 협동조합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종이꽃 공예 수업은 인도네시아 자매들에게 공예를 가르치고 공예품을 상품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작되었다가, 모임이 발전되면서 목회 이주민 여성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자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이주민의 꿈과 삶을 지원하는 선교기관으로 바리스타 수업, 한국어 수업, 기타 교실, 공예 수업 등을 가르칩니다. 이외에도 외국어 교육이나 통번역 및 행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과 도소매업, 유통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예배와 이주민 목회 여성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온누리M센터의 BAM 사역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2020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1월에 첫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수업에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10명이 모였습니다. 강릉, 의정부, 인천, 발안 등 바리스타 수업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모임인원 제한이 생겼지만 두 반으로 분반하여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느 주일, 무슬림 학생 한 분이 커피 기구를 사러 왔다가 우

연히 시간이 맞아 인도네시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스위로'이며 저희는 삼촌이라고 친근히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위로 형제님은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회심한 무슬림(MBB)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린 분이었습니다. 시스위로 형제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또 인도네시아 예배에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기 바리스타 수업을 듣는 라흐맛 형제에게 직접 찾아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명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라흐맛 형제도 마침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며 현재 인도네시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위로 형제로 인해 스타트리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슬림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시고 준비하셔서 스타트리에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카자흐스탄, 네팔 등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역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바리스타 수업 외에도 한 달에 한번 종이꽃 공예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재봉과 한국어 수업이 있고, 수요일에는 기타 교실과 수요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업(사진 위/아래)



GGVS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인성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GGVS

Mission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로 양육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Vision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가운데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 학습교육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모든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ACSI 교육과정을 IT와 미디어의 기능 적용

Application ONLINE 교육 통합 시스템, K-12학년 운영, ACSI 의 회원으로 미국 교육과정 인정, 미국 대학으로의 입학 자격, 실시간 크리스천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교사 한명 당 10명의 학생을 배정, 현지학습센터(LLCS)운영-음악, 미술, 스포츠, 문화, 예능

GGVS 한국위원회 _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남북로2길 11, 2층
GGVS 한국대표이사 이재순 목사 / GGVS 학교 부설 학습센터장 조경애 교사
http://ggvschool.com/
GGVS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http://school.ggvschool.com/
ACSI Member: https://www.acsi.org/find-a-school
입학 및 편입 안내 010-2074-3906





매들, 봉사자이신 권사님이 함께 모여 상담을 하고 아이 양육 방법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격려하면서 육아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인도네시아 자매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주민들이 만든 물품은 네이비스토어와 스타트리 홈페이지, 그리고 동역자들의 귀한 도움을 통해 사업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종이꽃 수업에서 만든 꽃 액자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만든 예쁜 퀼트 지갑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베트남 선교사님의 캐슈넛과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의 히비스커스 차, 로젤라 잼 등을 판매하여 선교지의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수익은 100% 선교에 사용됩니다. 또한 임대료와 전기세,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사업 수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창업기술, 언어, 취미 등 교육(위) 종이꽃 공예 수업(아래)

선교를 위한 온전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이꽃 공예 수업 강사는 온누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과견해주셨고, 바리스타 수업 강사는 평생교육원 동아리 모임에서 과견해주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동아리에 참여하던 카자흐스탄 모녀가 자연스럽게 우즈베크 예배에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센터와의 연계 사업은 BAM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는 필리핀 공동체와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함께 이주민 카페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습 제공과 현지에서의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위한 본점을 세우고자 합니다. 카

페를 통해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헤브론 카페'입니다. 헤브론 카페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의 지점입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재정적인 부분과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주민이 이주민을 선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필리핀 공동체가 카페 설립 문의를 하러 왔다가 헤브론 카페를 알게 되어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양대 앞에 카페가 세워지게 되어 유학생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 카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주민 비즈니스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스타트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형제와 이란 자매가 머무는 장소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쉼을 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창의적인 비즈니스로 무슬림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스타트리의 이주민들은 한국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비즈니스로 소외된 자들을 돕는 통로가 되도록, 스타트리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연재] 프랑스 위그노 선교가 21세기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 - 3회

글 채희석 목사



Ph.D, 프랑스 침례교단(FEEBF) 목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목회신학교(ATI) 파리분교 교장, 한불상호문화원 원장

▶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세계 각지로 망명한 위그노는 작금의 난민 또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본보기가 된다. 위그노는 경제적 이민이 아닌 정치적·종교적 핍박을 피해 떠난 이주민으로서, 규모나 기간의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들이 겪은 상황과 경험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따라서 종교적 측면과 아울러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그노가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흠어진 위그노들은 개혁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망명자가 겪는 고통, 타지 생활의 불확실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코자 디아스포라의 길을 선택하였다.

많은 위그노들이 유럽 주변국으로 피신했으며 소수 무리는 신대륙, 남미, 인도양, 아프리카 남단까지 흠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흠어진 점이 위그노 선교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 흠어짐은 공간적 차원으로 주로 이해되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그노는 선교 역사상 아마도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스위스·네덜란드·스코틀랜드처럼 개혁신앙을 이미 받아들인 나라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위그노는 개신교 신앙의 첫 증인이 되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위그노

프랑스 위그노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미친 영향

종교개혁 시대에 디아스포라 선교의 문을 열었던 프랑스 위그노의 역사적·종교적 배경과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희망봉에 도착한 위그노

“ 위그노가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흠어진 위그노들은 개혁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망명자가 겪는 고통, 타지 생활의 불확실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코자 디아스포라의 길을 선택하였다. 많은 위그노들이 유럽 주변국으로 피신했으며 소수 무리는 신대륙, 남미, 인도양, 아프리카 남단까지 흠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흠어진 점이 위그노 선교의 독특한 특징이다.”

는 지역 그룹에 따라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한 선교패턴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응해나갔다.

둘째, 위그노는 난민의 신분으로 정착한 곳에서 그 나라의 경제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였다. 유럽을 지배할 만한 막강한 군대, 뛰어난 지식계급, 월등한 문화와 발전한 산업 등을 누리는 선진국이였다. 따라서 수많은 위그노가 외국으로 망명하는 상황은 프랑스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불행과 다름없었다.

결국 프랑스는 경제 산업 측면에서 인구감소와 경제 위축 현상이 현저히 나타났지만, 위그노를 수용한 나라인 영국·독

일 브란덴부르크·스위스 제네바 등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는 역사적 평가도 있다(Meinrad Busslinger, 2016). 루이 14세 시절 군사령관 보방(Vauban)장군은 <위그노 회상에 관한 기록물>(Mémoire pour le rappel des huguenots, 1689)을 집필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견한 바 있다(Meinrad Busslinger, 2016).

그러나 루이 14세는 보방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추방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수많은 위그노의 망명 이후 프랑스가 진정으로 잃은 것은 단순히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다양성, 반론, 관점의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역량을 상실한 것"이라고 역사학자 카바넬

(Patrick Cabanel)은 지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흠어진 위그노를 통해 16~18세기에 위대한 디아스포라 행진 역사를 이루셨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흠어지면서 복음이 다양한 문화권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그노는 지역, 문화, 언어가 각기 다양했던 상황 속에서 '개혁 기독교'라는 공통된 가치 및 유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개혁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개혁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다.

위그노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나타나는 선교자의 정체성, 선교 형태의 다양성 등은 우리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이주민과 협력하는데 소중한 지혜를 제공한다.

--
우리는 위그노가 디아스포라로서 개혁신앙을 어떻게 전파하였는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위그노 디아스포라 선교는 어떤 이주 정책으로 현지에 정착하였는가?

- 그들은 어떤 신앙적, 신학적 기초를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세워나갔는가?

- 여러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그노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 본국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Eckart Birnstiel, 2001).

--
참고 문헌:
Adolphe Schaeffer, Les Huguenots du seizième siècle, (impr.) Amazon.co.uk, 1870.

Eckart Birnstiel (dir.), La Diaspora des Huguenots : Les réfugiés protestants de France et leur dispersion dans le monde (XVIe-XVIIIe siècles), éd. Honoré Champion, 2001.

Élie Benoist, Histoire de l'édit de Nantes, 1693.

Louis Fraysse, <Histoire d'un exil>, Réforme no 3670, 1er septembre 2016.

Meinrad Busslinger, L'apport économique et culturel des Huguenots aux pays du Refuge, éd. Ampelos, 2016.

Patrick Cabanel, Histoire des protestants en France XVIe -XXIe siècle, éd. Fayard, 2012.

[기고] 이주민 경제자립 돕는 사천아열대채소농장

아열대채소 재배로 비즈니스선교 성공적 수행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선교사들이 국내로 귀국하면서 이주민 선교에도 비즈니스선교(Business As Mission, BAM)의 중요성이 드러난 가운데, 사천의 한 이주민 선교기관이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면서 비즈니스선교(BAM)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사천아열대채소농장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어졌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가 원산지인 롱빈·공심채·오크라·인디언시금치·고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대에 편입되면서 아열대 채소 재배가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기후 변화에 반응하여 비즈니스선교(BAM)를 개발한 것이다. 아열대 채소는 전국적으로 납매한 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나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사천아열대채소농장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나서서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가공·유통까지 하는 곳은 아직 없다.

농장은 사업 초기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작물 재배 기술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재배된 아열대 채소는 전국의 이주민에게 판매되며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도 납품된다. 농장은 향후 아열대 채소가 항노화 식

사천아열대채소농장을 운영하는 이정기 목사는 “아열대 채소가 한국인의 식탁에 다양성을 제공하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다문화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기 목사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설립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 설립
인터내셔널 셀터교회 담임

품임을 강조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판로를 더욱 넓힐 예정이다.

사천아열대채소농장을 운영하는 이정기 목사는 “아열대 채소가 한국인의 식탁에 다양성을 제공하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다문화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동남아에서 국민 채소로 사랑받는 공심채,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고급 요리재료로 쓰이는 롱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뮤신 성분이 풍부한 오크라 등 대표적인 아열대 채소로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BAM, 매우 유용한 선교 전략

이 목사가 비즈니스선교(B-



결혼이주여성들이 나서서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가공·유통까지 하는 사회적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AM)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BAM이 이주민을 섬기는데 매우 유용한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교회 헌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회와 개인 후원에만 의존하면 이주민 선교기관의 자립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무엇보다 BAM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중요한 선교 전략이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AM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주민을 축복할 수 있다. 따라서 BAM은 영적, 경제적 필요를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신대 김성욱 교수는 “비즈니스가 선교를 부패시킨다거나 비즈니스 영역과 복음전파의 영역이 다르다는 오해 등은 여전히 BAM의 장애물”이라 지적한 바 있다(2013). 사천아열대채소

농장은 이러한 한계를 딛고, 기후에 따른 농작물 판도 변화에 발맞추어 성공적인 BAM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선교(BAM)가 이주민 선교의 유용한 도구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이주민선교훈련학교 23기 모집

이주민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2022. 3. 7 ~ 6. 13

매주 월요일 오후 7:30 ~ 9:30

장소_ 온라인 ZOOM 훈련비_ 13만원(교재포함)
등록기간_ 2022. 2. 8 ~ 3. 3 문의_ 하소미 선교사(010-3335-2449)
신청방법_ <https://forms.gle/YZxFG36pqc47ibpj8>
주최/주관_ 위디국제선교회 CDM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주안대학교 대학원



	NO	날짜	강의 주제
상황과 이해	1강	3/7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2강	3/14	한국 이주민선교의 역사와 현황
	3강	3/21	성경속의 이주민
	4강	3/28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그라운드워 준비와 적용
이주민 지역자의 현장보고(case study)			
준비와 적용	5강	4/4	비교종교
	6강	4/11	이단들의 이주민포교에 대한 대처
	7강	4/18	이주민 선교지역자의 자질과 leadership
이주민 지역자의 현장보고(case study)			
진행과 성취	8강	4/25	이주민 선교지역의 5단계
	9강	5/2	유학생 선교
	10강	5/9	이주민 근로자 선교
	11강	5/16	이주민 가정 및 2세 선교
	12강	5/23	탈북민 선교
	13강	5/30	문제해결 및 협력 네트워크
이주민 지역자의 현장보고(case study)			
수료	6/13	연구발표 및 수료식	



[데스크칼럼] 비온드 팬데믹 언택트

글 이창배 목사

아이앤유저널 발행/편집인,
아이앤유저널(퍼블리싱) 대표,
AFC 선교회 이사,
기하성 유림순회선교사

언택트-뉴노멀 풀어갈 과제, 진정성이 “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언택트(un+contact의 단어 조합)라는 뉴 노멀(New Nomal)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난 진실에 대한 상호소통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설로 국가와 국민 간의 소통은 진정성이 최우선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의 정치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소통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 됨됨이, 곧 진정성이 필수이다. 현재의 언택트 상태에서 '비온드 코로나'를 어찌 맞이할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7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한 주의 확진자 수를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약 114만 명, 러시아가 약 103만 명, 대한민국 약 91만 명, 브라질 약 68만 명, 터키 58만 명, 미국 53만 명, 일본 51만 명 순이다(2/26 기준 지난 일주일의 통계).

한때 방역 모범국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 세계 3위 국가로 일순간 부상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의하면

지난 2월 23일에 17만1442명, 24일에 17만15명, 그리고 25일에는 16만5890명으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번 주간을 고비로 확진자 숫자가 내려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이제 며칠 후에는 20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된다. 여야 후보들의 막바지 경쟁이 정점을 향해 치달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 때문일까, 확진자 17만 명이라는 엄청난 증가추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보인다. 그만큼 누적된 피로감 탓일까? 코로나19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오미크론이 엄청난 감염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오히려 확진되

어 병치레를 겪고 난 사람들은 그 증상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안심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 어린 아이들까지 코로나에 확진되는 상황이니 확실히 예전과 또 다른 양상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백신이 정말로 만능이 아니라는 점은 대한민국이 86.25%(상위 10위권)의 국민이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여

실히 드러난다. 2월 25일 기준 아프리카의 브룬디는 백신 접종률이 0.07%로 전체 1%도 넘기지 못하지만,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 수는 100명에 불과하다. 0.38%의 콩고민주공화국은 104명, 차드는 0.87%에 32명이다. [백신 접종률 통계 출처: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크게 보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룹은 백신 보급률이 높은 만큼 확진자 수도 높게 나타나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백신 보급률이 5%도 채 되지 않는데도 확진자 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가 선진국형 팬데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통계로 나타나는 분명한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시원치 않다는 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충분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사람들이 추가접종에 쉽게 호응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언택트(un+contact)라는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드러난 진실에 대해 상호소통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소통은 진정성이 최우선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의 정치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소통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 됨됨이, 곧 진정성이 필수이다.

현재의 언택트 상태에서 '비온드 코로나'를 어찌 맞이할까? 온갖 이단 사설과 미신이 들끓고 날뛰는 현상이 우려된다.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교회가 걱정스럽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글 이제순 목사

살롬교회 담임목사
(사)사랑의나눔 공동대표

지배하려는 힘이자 이상인 “돈” 경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KRV 마6:24)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땅과 하늘, 빛과 어둠을 대칭지어 말씀하시고,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절 속 '두 주인'은 우리의 예상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의 '재물'은 NIV 영역성경에서 대문자 "Money"로 표시되며 KJV 성경은 맘몬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비인격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조종할 뿐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영성이 헨리 나우웬은 "돈은 힘이 있어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돈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삶속에서 돈의 통제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섬기기를 주저합니다. 비록 돈이 너무 세속적으로 여겨진다 해도, 돈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시 24:1)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곧 하나님의 재산이며,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이라는 가치판단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면, 재산과 재능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

분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창 1:28). 성경은 '관리하는 역할'을 '청지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마치 주인이 그의 청지기에게 이르듯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

유한 재산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써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듯 여러분도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자료] 이주민 다이제스트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및 통계현황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우측 표와 같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 체류자격 참조

2020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이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이 코로나19로 제한되면서, 특히 단순기능인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참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214만 6748명으로 전년도 221만 6612명보다 6만 9864명(3.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

국인 근로자는 45만 5287명으로 집계되었고 2019년 51만 5051명과 비교해 5만 9764명이 감소했다. 특히 남성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118만 4176명에서 2020년 111만 2552명으로 7만 1624명이 감소했다.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은 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치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약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79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 중 92.1%가 현장 생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며 응답 기업의 69.6%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통해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답 기업의 95.3%는 2022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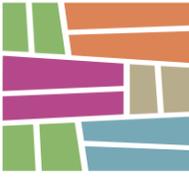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전문인력	단기취업(C-4)	일시행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예술행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순기능인력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해운법」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수산업법」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③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작물재배업, 축산업, 연

[표] 체류자격

구분	2019년 총체류	2020년			
		총체류	합법 체류	불법 체류	
계	567,261	452,297	391,735	60,562	
전문인력	소계	46,581	43,258	39,113	4,145
	단기취업(C-4)	1,645	2,356	1,991	365
	교수(E-1)	2,187	2,053	2,050	3
	회화지도(E-2)	13,910	12,621	12,574	47
	연구(E-3)	3,132	3,110	3,104	6
	기술지도(E-4)	220	199	198	1
	전문직업(E-5)	624	374	367	7
단순기능인력	예술행행(E-6)	3,549	3,011	1,600	1,411
	특정활동(E-7)	21,314	19,534	17,229	2,305
	소계	520,680	409,039	352,622	56,417
	비전문취업(E-9)	276,755	236,950	189,828	47,122
	선원취업(E-10)	17,603	17,552	11,153	6,399
	방문취업(H-2)	226,322	154,537	151,641	2,896

[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10.7418.0191
<http://feedthechildren.or.kr>






[전문인칼럼] 목회 단상 짧은 설교

글 윤민영 목사



순복음전향교회 담임목사, 위대국제선교회 이사장, 前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前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실세와 손잡기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고, 실세로 인하여 권력이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의 건국 영웅인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 의미심장한 꿈이었지만 깨고 난 후 그는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권이 그분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실세(實勢)란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리는 아닌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를 때 실세라는 표현을 쓴다. 조선왕조 7대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열여덟 나이의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인 대비마마 정희왕후는 당황하거나 오열하지도 않고 즉시 13세 성종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대비인 정희왕후가 그야말로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였던 것이다. 정희왕후는 지방관리를 임명하여 보낼 때도 대비인 자신이 직접 면접을 보고 임명을 했을 정도로 고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고, 실세로 인하여 권력이 망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의 건국 영웅인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 의미심장한 꿈이었지만 깨고 난 후 그는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 왕은 당시의 지혜자를 모두 불러 놓고 자신의 꿈을 알아내어 해석하라고 명령한다. 만일 실패한다면 거짓말쟁이로 몰아내고 목을 쪼개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무섭게 호령한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여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한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하다.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철이다. 알 수 없는 돌맹이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치니 완전히 무너져버

리고 큰 산이 된다. 이어지는 다니엘의 해석은 이러하다. 바벨론 이후에 금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 그 후에 그보다 못한 놋 같은 나라, 그리고 철 같은 나라의 역사가 미래에 펼쳐질 것이며 돌로 시작하는 큰 산은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

그 후 역사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의 역사로 이어졌다. 왕은 큰 감동을 받아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고 최고 지도자로 세운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꿈으로 말씀하셔서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갔다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더 깊은 뜻을 알

았다. 하나님은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권이 그분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세상은 권력이 있는 왕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세는 하나님이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신임이 두터운 하만 총리는 고분고분하게 옆드리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개를 미워하여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제정한다. 또한 그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인 은 일만 달란트를 국고에 기부하여 왕의 결재를 받는다. 페르시아의 수산 궁은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의 통곡 소리로 어지럽지만, 그 와중에도 하만은 모르드개 처형 결재를 먼저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왕궁에 도착한다.

한편 왕은 지난밤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의 사기(史記)를 읽다가, 모르드개가 몇 년 전 암살 위협을 신고해주어 자신이 보호받았는데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떻게 상을 줄까 고민하던 순간 문 앞에 나타난 하만에게 왕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상을 줄까?" 묻는다. 하만은 상 받을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에 태워서 수산 궁을 한 바퀴 돌게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왕은 하만 총리에게 지금 당장 모르드개를 찾아서 네 말대로 하라고 명령한다. 사형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모르드개에게 큰 상을 주게 된 것이다.

그 후 왕이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여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다. 하만과 그의 추종세력은 모두 죽고, 모르드개가 존경받는 총리가 된다. 이로써 떠오르는 잠언 구절이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실세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자.

글 유윤종 교수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장, 구약신약 교수

공정과 정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약성경에는 두 단어가 나온다. 첫 단어는 '미쉬파트'(mishpat)이다. 이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shapat)에서 유래되어, 재판 결과로 형성된 법률이나 판례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어는 '쯔데카'(tsedekah)이다. 이 단어는 '의'라는 히브리어 명사 '쨌데크'에서 왔다. 개역개정에는 주로 '공의'로 번역된다.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원래대로 되돌리다'는 뜻이다.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어도 '공정과 정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화두에 속한다. 전 세계에 제기된 핵심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그 이면에는 중산층이 무너진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4차혁명시대는 그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

해서 소외계층을 몰아붙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디아스포라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언어적, 정서적 소외를 동시에 지닌다. 이는 인종이나 국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문제해결의 기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정의와 관련하여 구약성경에는 두 단어가 나온다. 첫 단어는 '미쉬파트'(mishpat)이다. 이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뜻의 히

브리어 동사 '샤파트'(shapat)에서 유래되어, 재판 결과로 형성된 법률이나 판례를 의미한다. 개역개정에는 주로 '정의'로 번역된다. 재판에서의 공정함은 한 사회의 정의를 형성하는 데 기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기의 규칙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상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어는 '쯔데카'(tsedekah)이다. 이 단어는 '의'라는 히브리어 명사 '쨌데크'

에서 왔다. 개역개정에는 주로 '공의'로 번역된다.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원래대로 되돌리다'는 뜻이다.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 균형을 이루려 한다. 한쪽이 가물면 다른 한쪽은 홍수가 난다. 물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다시 하늘로 증발한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고, 후손들이 계속 반복된 삶을 되풀이한다. '쯔

데카'는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아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것을 선행, 혹은 의라고 부른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쯔데카(의)'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 형성된 불균형을 되돌려 균형을 이루려는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땅끝이웃] 사역 에피소드

글 문창선 목사

본지 발행/편집인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산소망교회 담임목사

파키스탄 형제들

어느 날 파키스탄 형제 둘이 찾아왔다. 일하던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용주에게도 찾아가 상황을 검토한 후 문제를 잘 해결해주었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통역하는 일도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대부분 언어 전달의 미숙(miscommunication)으로 발생한다. 파키스탄 형제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에 자주 오게 되었고, 파키스탄 형제가 순식간에 45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우리는 주일에 각 나라 별로 나누어서,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일곱 차례나 드렸다. 거기에서 파키스탄 예배까지 합쳐서 여덟 번의 예배가 드리지게 된 것이다. 한 교회에 많은 이방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무슬림이기에 더욱 기대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키스탄 형제들이 당황스러운 요청을 했다. 예배 설교 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기

선교의 힘은 목회에서 나온다

필자는 안양으로 사역지를 옮겨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면서 국내 목회도 함께 시작했다. 한국 성도도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성도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처럼 한국 교회 성도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교도 드물다. 산소망교회 성도들은 사역자 이상으로 이주민 선교에 전문가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사역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감사하다.

독교의 핵심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좋은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우리는 이 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관계에 냉기가 감돌았다. 어찌 예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교회에 안주시키자고 알맹이 없는 복음을 전하여야겠는가?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후회가 되거나 아쉽다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를 놓친 그들이 안타까웠고,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의 한계에 마음이 무거웠다.

홍수가 난 파주

엄청난 비가 파주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속출하였고,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피해 규모는 컸다. 마침 휴가 기간인지라 시민들의 복구현장 참여조차 미미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 성도들은 자원하여 수재 현장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었다. 가뜩이나 휴가철이라 한국 근로자를 대신하여 밤낮으

로 일해야 했다. 문제는 각 공장 대표의 허락이었다. 그동안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중재 및 통역을 도맡아서 하였고, 공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을 빼달라는 허락을 받아내기란 무리였다. 나는 외국인 성도들에게 마음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위로하였지만 그들은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요청하자"며 나를 설득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수재민과 현장 참여를 위해 기도한 후 공장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어떤 반대 없이 모든 공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 주기로 결정했다. 수해 복구 내내 구슬땀을 흘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던 성도들을 보며,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이 새삼 떠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일도 참 많아졌다.

가나 형제 카카리의 죽음

예배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서슴없이 욕을 하고 술을 마시

던 가나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카카리였다. 교회의 초창기 성도라 유난히 정이 가던 형제였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발전이 더뎠다. 처음에는 인내하며 교육하고, 그의 잘못을 포용해주고, 자주 찾아가 용기를 주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들게 되자 카카리에게 점점 관심을 주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였다. 순간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늘 속 썩이던 성도였기에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웬지 후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달 후, 그가 고향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다시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해야만 했다. 어쩌서 카카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감싸주지 못했을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었는데, 내가 너무 소홀하여 카카리가 더 좋은 신앙의 상태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까

웠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구원의 긴박성을 요구한다.

산소망교회의 사역

선교의 힘은 목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의 싸움"으로 표현하는데, 하물며 긴박성과 긴장감이 가득한 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목양의 경험 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선교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논리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국내 목회의 병행을 더욱 필요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며, 한국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성도의 참여를 끌어낼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양으로 사역지를 옮겨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면서 국내 목회도 함께 시작했다. 한국 성도도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성도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처럼 한국 교회 성도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교도 드물다. 산소망교회 성도들은 사역자 이상으로 이주민 선교에 전문가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사역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에 감사하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7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주제로써의 “타자성”



폴 우즈(Paul Woods) 교수

영국 옥스포드선교학센터의 동남아 전문 연구지도 교수, 디아스포라 선교학 7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주제로써의 타자성' 저술

본지는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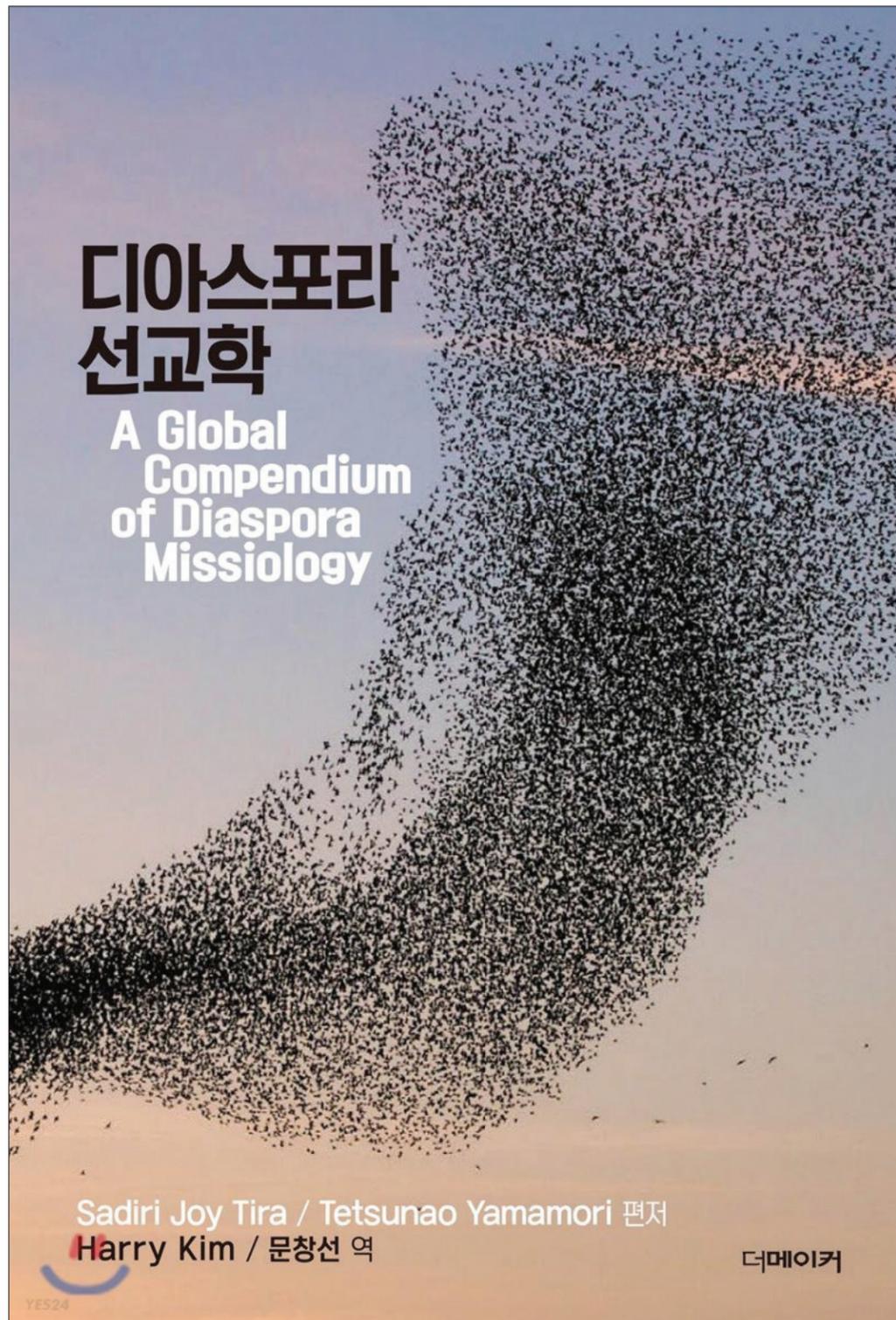
디아스포라 신문은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영국 옥스포드선교학센터의 동남아 전문 연구지도 교수 폴 우즈가 저술한 7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주제로써의 타자성'을 요약하였다.

이주민은 일자리와 자유를 좇아 이동한다. 그들은 출생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발적 탈출을 감행하거나 빈곤과 위협,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이주를 하기도 한다. 이주민은 이동한 곳에서 일반적으로 외부인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이때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양측의 주관적인 관점 등에 따라서 이주민은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통제받는 위협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외모,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 및 문화 등이 현지인과 다르기에 이주민은 타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주는 본질적으로 타자성 Otherness(대문자 O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용어임을 나타내기 위함)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타자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디아스포라 사역에서 타자성은 어떤 작용을 할까?

타자성의 배경

디아스포라 신문은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영국 옥스포드선교학센터의 동남아 전문 연구지도 교수 폴 우즈가 저술한 7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신학적 주제로써의 타자성'을 요약하였다.

이주민과 호스트 지역사회는 상호 간에 타자이지만, 그 타자성은 대칭적이지 않다. 외부에서 지역사회로 진입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원과 지식이 부족하고 고용, 기회 등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업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주민은 항상 집단의 소수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족



과 친구 관계는 특히 중요해진다. 이주민은 '먼저 이주 온 이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한다. 그들은 호스트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 민족의 특색이 나타난 소수민족 상점이 나 차이나타운 같은 공간은 이민자 공동체가 고국과 연결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주민은 '항

상 ~를 먹는다, 또는 '항상 ~를 입는다'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정체성과 과별의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현대의 이주 현상은 지역사회 안에서 즉각적인 타자성을 만들어낸다. 타자성은 우리가 타자와 관계하면서 형성되는 자

기인식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우리가 허용하는 타자성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이어도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타자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타자성이 양자택일의 사안이 될 수 없음에도, 실제로 현지

인 대다수는 상대하는 집단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단순히 외모나 종교가 크게 다르다고 차별이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인도 남부 또는 스리랑카 이주민보다 코카시안을 더 환영하고, 서유럽은 다른 민족보다 폴란드 이민자를 향한 두려움이 더 크다.

하나님과 타자성

타자와 관계하는 교회의 책임과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를 둔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타자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행위는 완전하고 무한하시기에, 타락하고 유한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며 존재론적 차이의 한계를 감싸주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자비를 베푸셨다. 그 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과 관계하셔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타자인 우리를 품으시며 건강한 타자성의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신다.

사역과 타자성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타자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한다. 세속적 질서 속에서 신자는 세상의 타자로 여겨져 박해를 받기도 한다. 세상의 입장에서 신자는 외부인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교와 교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 비기독교인 타자들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한다. 불신자들의 신앙은 우리의 친절한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기독교인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타자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번역정리: 편집인>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황덕영 목사



본지 고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변화하는 선교지,
도전하는 선교사

중요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주민 선교
는 선교지에서 귀국한 선교사
들에게 지속적인 선교사역 참
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이
고 풍성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이주민선교
연합회(KIMA)에 2기 임원들이
취임하였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신분의 이주
민을 한국에 보내셔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십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문 앞'을 선교지로 만
드십니다. 우리의 도시마다 이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지
역사회의 이웃으로 이주민을 초
청하십시오. 이주노동자와 난민,
유학생,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초국가적인 상황으로 수놓아가
고 있습니다.

로잔디아스포라 의장인 티
비 토마스(T.V. Thomas) 목사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정보
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도 한국
에 이주민의 유입이 더욱더 많
아질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술, 고등교육, 건설, 의료보
험 등의 체계에서 이주민 선교
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이주민 선교 성장의 폭
발"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
다. 이때 KIMA가 표방하는 "이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
명을 완수하라"는 위임은 시대

의 요구와 일치합니다.
로잔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서는 KIMA 유형의 이주민 선교
연합회를 설립하여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른 나라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KIMA
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단계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시 한번 새로운 임원진을 축복
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질
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 첫째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인
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
러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
고 그들을 동원하여야 합니
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집중적
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
루십시오. 열린 소통과 상호 격
려, 감사가 KIMA의 모든 사역
에 흘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길강목 소장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행정학 박사, 주몽골영사
이흐차사국제대 명예법학박사

다양성과
창의

미국이 세계 경영국가가 된 배경에는
넓은 국토와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창의성'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비롯되
고, 응집성은 동질성에서 유발된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할 때 창의가 솟는다. 그렇지만
사회갈등의 여지도 있다는 면
에서 다양성은 관리가 필요하다.

13세기 몽골의 칭기즈 칸은 정복 군주로서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근래 들어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물론 칭기즈 칸에 관한 책이 훨씬
더 많이 출판되었지만, 민족·지역·종교를
뛰어넘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쿠빌라이 칸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서
적이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가 건국한 대원(大元)에는 몽골인
장군, 중국인 유학자, 티벳 라마승, 이슬람
상인, 중앙아시아 천문학자, 유럽의 기독
교 선교사 등으로 붐볐다. 쿠빌라이 정부
에는 몽골인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중국,
위구르, 티베트인들이 있었다. 각계각층의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는 통합으로 더 큰
이익이 창출되었다. 문화 분야는 어떠했
을까.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수많은
민족에게 몽골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강요
하지 않는 유연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물론 쿠빌라이가 언어, 유목민의 정신,
삶의 본질 등 몽골의 뿌리를 지키려 했던
노력도 관찰할 수 있다.

당시 다양성을 두고 첨예한 논쟁은 없었
을까. 다양성 인정과 존중을 중시하는 진보,
몽골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보수가 건전한
토론을 통해 공존하였기에 정치, 경제, 문
화, 종교 등 다방면에서 문물교류가 융성하
게 이뤄졌다. 비단길, 초원길에 이어 서양의
'대항해시대'의 바닷길이 열리고, 성경 다
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쓰인 것도 바로 이 시기
였다.

낯선 문화에 대한 즐거움이 바로 '창의성'
의 원천이다. 서로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
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 그래서 로마
제정기의 시인인 플루타르크(Plutarch)는
"내가 끄덕일 때, 똑같이 끄덕이는 친구는
필요 없다. 그런 건 내 그림자가 더 잘한다."
라고 하였는가. 시대가 변하여 쿠빌라이
칸의 통치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민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초에
외국인·이민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으나
팬데믹으로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민현상과 다양성은 세계적인 트렌드
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모
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문화
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for Sorok Uni Foundation, Inc. featuring 'Relief', 'Rehabilitation', 'Empowerment', and 'Sustainability' programs. Includes text: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and 'SOROK UNI COMMUNITIES' with photos of various regions like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etc.

[기획특집] Business As Mission(BAM)

글 제프리 리



SfK Network CEO

성경 속 이주민, 현대의 이주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주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위협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국 사람들도 강제로 이주당한 경우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흩어져 살게 된 것도 비자발적인 이주였습니다.

현재의 문맥 안에서 이주민을 광의로 해석할 때 영어로 'migrant'라고 합니다. 이 개념 안에서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는 자발적 이주민입니다. 저는 거주 목

적으로 미국을 갔을 당시 '이민자(immigrant)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제가 떠난 한국의 관점에서는 같은 '이민자'여도 외국으로 이민을 간 'emigrant'가 됩니다. 르완다나 태국에서는 임시로 있었으니 '임시 체류 외국인'(expatriate)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개념인 'migrant'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온 노동직이나 국제결혼자를 칭하는 단어로 쓰이면서, '이주민' 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주민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이주당한 경우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해 성노예로 살아가거나, 강제 결혼으로 이주당하거나, 납치되어 소년병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강제로 이주시킨 경우도 이 부류에 해당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환경이 주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협 때문에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극심한 흉년, 내란, 갱단의 위협,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중해와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신

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보트 피플(Boat People) 등의 이주민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미국 국경의 밀입국자도 가난과 내란 및 자연재해를 요인으로 본다면 이 부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As Mission(BAM)

성도는 선교적 유전자(missional DNA)를 가진 선교적 존재(missional being)입니다. 선교적 유전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보내셨기에 성도에게 주어진 유전자입니다(요 20:21). 그런데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영성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내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입니다.

그렇다면 'missional business'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 'Business As Mission', 즉 BAM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비

즈니스의 내적 변혁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여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주민과 BAM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이 BAM을 직접 시도하기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주민 중에 크리스천의 비율이 애초에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셋째, 이주민 중 크리스천이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에 도전하려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넷째, 설사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언어와 관습의 차이 및 자원과 기술 등의 부족으로 비즈니스를 시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천 사업가가 BAM을 통해서 이주민을 섬기고 동원할 수 있는 길은 제법 많습니다. 크리스천 이주민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선교할 대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주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한 직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BAM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대화의 창구가 쉽게 열릴 것입니다. 또한 BAM에 뜻이

있으나 진입이 어려워 시도하지 못한 크리스천 이주민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Synergy for the Kingdom of God(SfK)(참조: www.sfkministries.org)

SfK는 'Synergy for the Kingdom of God'의 약자로, 선교기업(Business As Mission)을 훈련(equipping)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empowering)하는 일을 합니다. BAM 훈련은 2주 집체훈련, 1주 집체훈련, 16주 온라인 훈련 및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선교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역의 폭이 확장되도록 돕는 사역으로, 그 방법으로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출 또는 투자를 통한 금융자본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별된 선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 유통을 촉진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SfK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16개국에 있는 19개의 선교기업을 섬기고 있고, 총 21개 단체가 Network에 속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SfK는 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6개의 우선순위 그룹을 정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이주민(migrants) 그룹입니다. 이주민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그리고 성령

선교기업(Business As Mission)을 훈련(equipping)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16개국 19개의 선교기업을 섬기는 중...

이 사역의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세계적인 이주 현상과 도시화

세계화와 도시화 및 이주현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세계는 선교 생태계를 재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내 이주현상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적 이주현상이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비즈니스에서 창출되므로 해외 유입 이주민 역시 도시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AM 사역은 이주민이 몰리는 도시를 겨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성경의 명령

이주민은 성경에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정착하지 않고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창 23:4; 뱀전 2:11).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소외된 자들에 속합니다(속 7:10).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나그네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5:34-36, 40).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BAM 사역에도 적용됩니다.

3. 성도는 영적 나그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므로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빌 3:20). 국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타향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나그네인 이주민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례 소개

이제 SfK의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들은 사람들이 찾는 소위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단지 비즈니스 선교의 길을 걷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Earth Heir, Kuala Lumpur, Malaysia - 이동 중인 이주민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본국을 떠나 이동 중에 있는 이주민을 NGO와 협력하여 섬기는 사례입니다. Earth Heir(EH)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BAM 기업입니다. 기업 이름이 나타내듯이 '지구 상속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망가진 환경을 회복하자는 취지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EH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장인들을 장려하고 그들의 기술을 보전 및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H가 있는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S국과 A국에서 온 임시 이주민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동 중인 이주민들은 대개 신분이 확보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H는 그들을 돕는 NGO와 협력하여 NGO에게 일자리를 주고 NGO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H는 SfK Missional Business Community의 멤버로, EH 상품 중에 일곱 개가 SfK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Shop4Impact.com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SfK가 유통을 통해 선교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례입니다.

Proskuneo Ministries, Clarkston, Georgia, USA - 초기 정착민으로서의 이주민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이주민이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섬기는 사례입니다. 클락스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조지아주에 유입되는 많은 난민들의 관문입니다. 클락스턴의

사역 단체 중에 'Proskune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Proskuneo는 헬라어로 예배를 뜻합니다.

이 단체는 미술을 통해서 난민들과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미술을 배우기 원하는 어린이나 어른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섬깁니다. 단체가 크리스천 기반이라는 사실은 밝히지만 신앙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중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성경을 주고 예배 처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학생들이 회심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창의를 계발하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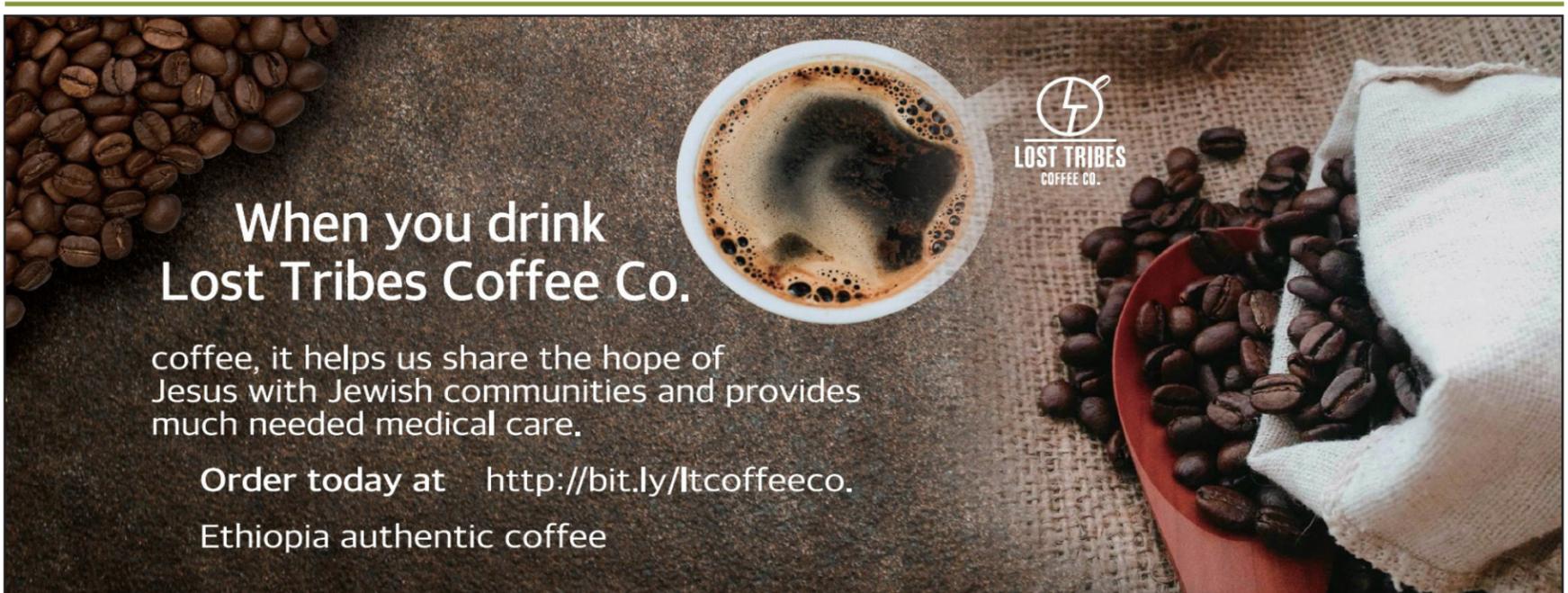
그러나 이주민을 향한 미국 국민의 갈리는 정서 때문에 후원과 모금 활동만으로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배달 일을 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는 모금을 받아 본국 사역과 미국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SfK는 이 사역자와 BAM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역이 세워질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는 SfK의 16주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인 'BMT 2022 영어 훈련'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Liverpool, U.K. - 정착민으로 사는 이주민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이주민이 영구 정착을 해가는 과정에서 같은 민족의 이주민을 섬기는 BAM의 사례입니다. 리버풀은 이주민들이 영국 잉글랜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SfK는 한 이란 사역자를 도와 이란을 탈출한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에서 핍박과 위협을 받다가 난민으로 인정되어 입국하였고 영주권을 얻어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SfK와 동역하는 사역자의 신분은 보안상 노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자는 교회를 세워 섬기다가 SfK와 연결되어 4주간 기초 훈련을 받고 총체적·창의적 선교기업인 BAM의 길을 가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건축회사를 세워 이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낡은 집을 사서 고친 후 되팔거나 의뢰를 받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소속원 6명이 SfK에서 실시하는 'BMT 2022 온라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익숙한 환경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여정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을 이주민으로 살아온 저 자신이 잘 압니다.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일과 예배와 섬김의 총체적인 아보다(Avodah)를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SfK가 일익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획연재] 전세계를 떠도는 순례자들

글 조용완 선교사



Cedar Tree Ministries(캐나다장로교단)
Executive Director
Grace Native Mission 대표
Cowichan Grace Church 담임목사

“캐나다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요?”

"캐나다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개척자(Church Planter)로 불러주셨기에,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캐나다 원주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또는 기독교 국가로 여겨졌기에 대다수가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캐나다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2001년 여름, 위디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족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입국했습니다. 곧장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일할 사역을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밴쿠버 아일랜드의 던칸(Duncan)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캐나다 원주민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북미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들은 땅의 소유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북미 원주민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부족별로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영국과 벌인 7년전쟁에서 패배한 후, 1763년 북미 원주민들은 영국계 주민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서쪽이 원주민 지역(Indian Territory)임을 선포하는 왕의 칙령(Royal Proclamation, 1763)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90년 후에는 캐나다의 연방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서쪽 땅을 소유하고자 원주민 부족 지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조약(Treaty)을 체결하였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조약의 대가로 연금, 농사기술, 기근시 식량 지원 등을 약속받고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e)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브리



Cowichan Grace Church(Cowichan Tribe: 약 5,500명)



Malahat Grace Church(Malahat Nation: 약 300명)



Kulleet Bay Prayer Service(Chemainus Bay First Nation: 약 1,300명)



Huu-ah-ayt(First Nation Band: 약 700명)

티시컬럼비아주의 대부분(니스가아 부족, 트와슨 부족 제외)과 유콘 준주 외에 캐나다 국토의 35% 이상이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땅을 차지한 후 원주민 말살 정책을 펼쳐 원주민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강제로 먼 곳의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로 보냈습니다. 기숙학교는 천주교, 성공회, 장로교, 연합교단 등 교단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원주민 아이들을 향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6년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수많은 원주민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땅, 언어, 문화, 종교, 정체성, 주체성을 빼앗긴 캐나다 원주민들이 술, 마약, 자살, 상실감, 가정의 분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백인 크리스천들은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강제로 문을 닫거나 불에 타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원주민이 전도 행위에 대해 자신의 부모를 탄압했던 무자비한 서구의 신을 믿으라는 강요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받은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곳 캐나다 교회에서는 이미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인 크리스천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저는 바로 원주민 교회 개척을 준비하였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카위찬 그레이스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말라한 그레이스를 개척하여 아웃리치 사역을

하였습니다(쿨릿베이, 후에얏, 파치다트, 디티다트 사역).

카위찬 원주민교회(Cowichan Grace Church)를 개척한 지 14년이 되어 현재는 여러 명의 원주민 리더십이 세워졌으며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사역으로는 미니 푸드뱅크를 통해 원주민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자살 위기에 있는 청소년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모임과 힐링 아워 스피릿(상담 모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 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습니다.

아웃리치 사역(Outreach Ministries)으로는 말라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매주 주일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쿨릿베이에서 매주 화요일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찾아가는 사역으로는 후에얏 청소년 사역과 파치

다트 주일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현재 닛넛 지역(Nitinat First Nation Band: 약 300명)에 교회를 세우려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선교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개척자(Church Planter)로 불러주셨기에,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뤄집니다.



[기고] 이주민 사역 BAM 훈련

글 김성수 선교사



위대선교사
SfK Korea - CAO
SfK MBA Deputy Director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선교/전도라는 미려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대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고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선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자 궁극입니다.

지역과 민족을 넘어 타 문화권으로 훈련된 선교사를 보내던 전통적 선교방법으로는 급변하는 선교 현장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BAM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총체적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 어디에나 빵이 있다면, 그것이 오천 명도 먹이시고 사천 명도 먹이시며 복음 전하시던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일터와 사업의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 선교지의 필요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나누는 것은,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시·공간 한계 뛰어넘는 창의적 선교의 대안



중요 교육자인 Post BMT 프로그램 참석자(위), 훈련수료증을 받고 기뻐하는 해외 훈련생들(아래)

대다수의 선교대상국은 복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소외와 불공평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소원이자 명령을 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BAM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강사(선교사)들의 강의와 토론, 과제, 아웃팅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터와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는 훈련과정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우미션(NowMission, 대표 송동호 목사)의 '일터 퍼스펙티브스: 8주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훈련은 △일터 관점에서 소명/세계관 △일터와 문화 △일터와 영성 △일터와 돈 △일터와 리더십 △일터와 현장/비전 △일터와 선교 △BAM 일터를 향하여! 수료식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SfK 선교회(SfK Ministries, 대표 제프리 리)의 SfK MBA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BMT훈련(Business Management Training)이 있습니다. 선교적 기업(Missional Business)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적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명의 재확신을 이끌어주는 사업관리 훈련 BMT와 POST BMT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BMT 과정은 6개의 모듈(변혁, 전략, 관리운영, 회계와 재정, 조직형태, 마케팅)을 각 5강씩 총 30강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16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두 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매주 토요일은 두 시간씩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상반기: 1/29 ~ 5/24(영어로 진행. 미국, 영국, 이란, K국 등에서 12명 수강 중)

하반기: 8/13 ~ 11/26(한국어로 진행)

POST BMT 프로그램은 BMT 수료자들이 참여하며 월 1회(셋째 주 토요일) 2시간 라이브 토크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BMT 심화 과정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한 피어 러닝(Peer-Learning)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경영관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네트워킹하는 훈련과정입니다. 2022년 현재 11개국 23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성도, 선교사 여러분께 BAM 훈련과정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To-Plate

천혜지역 호주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인터뷰] 이주민이 수행하는 비즈니스 선교(BAM)

낮에는 공부, 밤에는 일하며 BAM 자금 모아 사역 펼쳐

카메룬에서 온 엘버트(32) 형제는 국내 체류 6년 차다. 그는 한국에서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인 동시에 가죽 염색 공장에서 틈틈이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직접 중고물품 사업을 주도한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한해였던 작년, 같은 고향 출신 신부와 결혼도 하였다. 본지는 안산에 보금자리를 튼 엘버트 형제를 찾아가 '이주민이 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먼저, 한국에 오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한국은 세계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겨울에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용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아내와 더불어 더 큰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이주민들 특히나 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죽 공장이나 택배 회사의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

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중고물품들을 사들여 모았다가 컨테이너에 실어 카메룬으로 보냅니다.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이 생겨 함께 관리하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고 수익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Q 귀하의 사업이 BAM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일이 완전한 BAM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하는 사업의 취지와 방법에서 선교의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체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선정하여 보냅니다. 또한 사업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BAM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할 때마다 "터(foundations)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시 11:3)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적 같은 노동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신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근 BAM을 통해 고향의 이웃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었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건물 증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콰보네바포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중고물품들을 사들여 모았다가 컨테이너를 채워 카메룬에 보낸다.

지역(Kombone Bafaw)에 재난과 내전으로 인해 생겨난 난민들, 그중 난민 여성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작은 규모지만 꾸준히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는 안산의 월피동에는 카메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가까운 관계이며 주일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신생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ZOOM으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모일 때마다 공동체의

이모저모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상담학 박사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BAM과 더불어 고향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이주 유학생의 신분으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돈을 벌며 쉬지 않고 달려온 엘버트 형제는 이제 BAM으로 고향 땅의 난민들을 돕고 있다. 그에게서 배어 나오는 수수함과 강인함을 보며 이주민의 잠재력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엘버트 형제의 얼굴에 오버랩된다.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한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비즈니스 수익으로 자국 난민 돕는 사역 펼치고 있는 엘버트 형제 부부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기고] 다양한 이주민, 열방을 품으신 어머니 이야기

글 이다니엘 목사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사무총장

어느 70대 권사님의 하루

내 어머니는, 어느 작은 동네교회를 섬기는 평범한 72세 어르신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마음에는 늘 열방이 있다. 평생을 적잖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며 그들을 섬겨오신 가운데, 이제는 250만 이주민 시대에 "우리 집 대문만 열면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신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온 열방의 이웃들과 더불어 매일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다.



얼마 전, 어머니의 72세 생신 날 일어난 일이다. 아침 일찍 어머니를 뵈어 저녁식사를 청하려 할 즈음, 어머니께서 "난 오늘 점심식사 약속, 저녁식사 약속 모두 잡혔다. 괜찮으니, 다른 날 따로 모이자"라고 하셨다. 누구와의 식사일까 했더니, "점심은 방글라데시 전도사 사모님과 하고 저녁은 탈북민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하신다. 참으로 글로벌하신 어머니. 생신날 스케줄을 들으며 뭘 모를 뭉클함을 느낀다. 누구와 식사하시는지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최근 수십 년의 일상을 떠올리게 된다.

어머니는 주중에 매우 바쁘시다. 70세가 넘어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청년의 생기로' 가득하시다. 매일 그 생기로 이 땅의 다양한 나그네들을 만나신다. 3년 전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던 때, 어머니는 직접 제주에 내려가 제주 곳곳에 있는 난민들을 만나셨다. 꽤 능숙한 영어를 기반으로 무슬림 난민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고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주며 틈틈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감사한 것은, 무슬림 난민 청년들 가운데 의미 있는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들이 서울에 올라와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 정부의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던 나조차도 이 시기 어머니의 난민 사역을 보며 관점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수년째 방글라데시인 전도사 부부를 섬기고 계신다. 방글라데시는 빈곤이 만연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차별이 극심한 나라다. 부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 와서, 남편은 주중에 어렵게 신학공부를 하다가 주말에는 서울 소재 모 교회의 파트전도사로 사역했고 사모 역시 함께 교회를 섬겨왔다. 이들 부부의 서울살이는 결코 만만

치 않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기본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 유학생·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매우 높은 문턱이다. 심지어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이들을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 늘 음식을 해서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셨다. 행정/제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와 변호를 맡으셨고, 부부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들이 언제까지 한국 땅에 머물지 알 수 없으나, 그들 평생에 있어 어머니는 '한국 땅의 친정엄마'다. 어머니 생신날 점심 때 방글라데시 사모는 그 부족한 형편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정성 가득 담긴 식사와 섬김을 대접해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수년간 탈북민교회

에 출석하고 계시다. 남한사람으로서 탈북민들로 이뤄진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체제의 차이를 넘어 사회문화와 사고방식의 거대한 갭을 만들었고, 통일목회 현장에서도 그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하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려 애쓰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려는 가치가 존재한다. 어머니가 섬겨온 탈북민교회도 그런 교회다. 어머니는 매 주일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탈북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담임목회자인 젊은 탈북민 사역자를 정성껏 세워 드리고 있다. 어머니 생신날 저녁, 탈북민 목회자 부부와 교회 식구들이 어

머니를 위해 한가득 요리상을 준비하여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었다고 들었다. 참으로 흐뭇한 광경이다.

내 어머니는, 어느 작은 동네교회를 섬기는 평범한 72세 어르신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마음에는 늘 열방이 있다. 평생을 적잖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며 그들을 섬겨오신 가운데, 이제는 250만 이주민 시대에 "우리 집 대문만 열면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신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온 열방의 이웃들과 더불어 매일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다. 어머니의 하루를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사 55:5)이라는 표현을 저절로 실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선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연재] Dr. Tereso Casino 선교논단

글 Dr. Tereso Casino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본지 필진

성경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이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1~4)



오늘날 남아있는 이라크의 지구라트 유적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흠어져 나아갔더라”(창 10:18)는 구절 속에는 인간의 이주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다. 흠어진 가나안 족속과는 반대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흠어지지 않으려고 했다(창 11:4).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창세기 11장이 묘사하는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의 언어, 문화,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가진 단일문화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흥미롭게도, 이러한 세계의 일부 측면은 한반도와 그 이웃인 일본에서 오늘날까지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현지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지배적인 규범을 공유한다. 셈, 함, 아벳의 후손들은 아마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단일문화를 유지하는데 특화되었을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직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번성하라”는 말씀이 반복된다. “흠어짐을 면하자”는 사람들의 의지는 결국 이 핵심 사명에 불복종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하나님은 이들을 흠어 놓으셨고, 그로 인해 성경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이주가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다. 대홍수가 가인 이 세운 도시를 비롯해 인류 최초의 정착 흔적을 모두 쓸어버렸지만, 흠어진 노아의 자손들은 인류 문명의 두 번째 버전을 일구었다.

최초의 대규모 이주에 관한 몇 가지 사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들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5~9)

더 푸른 목초지로 향하는 것이 노아의 후손이 흠어지게 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바벨탑'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정착한 이래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 또는 '코리아 드림'을 찾는 이주자들과는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번영, 성공, 안정성에 틀림없이 만족했다. 그들은 생계, 경제, 상업, 무역 측면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시날 평지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 더 푸른 목초지를 찾아 고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이었다. 성경 역사상 최초의 집단 이주는 사실상 '비자발적 이주'였

다. 노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통일된 목표와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거주지의 영속성을 원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심으로 무산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자는 그들이 다시 시날 평지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언어 장벽이 생기면서 조국에 관한 정체성을 버릴 수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성경 본문은 그들 중 일부가 한때 도시화되었던 지역에 머물고자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렇듯 첫 번째 대규모 이주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명령)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들의 성취에만 도취되어 교만해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발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

노아의 자손들의 의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교차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주 중인 사람들의 현실을 통찰해볼 수 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국가, 민족, 집단, 그리고 개인이 세계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온 기록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했다. 이러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동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이끌었다.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안주하였다. 그들의 창의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벽돌과 모르타르를 만들어냈고 하늘을 향한 거대한 구조물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단일문화·언어를 공유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의사소통 체계를 흐트렸다. 다국어 현상은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분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 세계에 걸쳐 피조물을 번성케 하고 돌보라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조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위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도시를 건설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벨탑을 짓는 이면에 자리한 그들의 반항적인 자세였다. 노아의 자손들은 의무를 등한시했다. 인간의 저항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설계를 좌절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흠어놓으셨다. 오늘날의 이주 현실은 창세기 11장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생태계와 천연자원의 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흠으셔서 그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번역정리: 편집인)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연재] 한인디아스포라와 세계선교-3회

글 김성훈 선교사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한인 디아스포라와 세계선교

1902년 12월 22일, 첫 이민단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젠카이마루'에 승선하였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위해 일본 나가사키에 들른 후, 미국 선박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후로도 이민단이 속속 도착하여 1905년에 그 수가 남자 6200명, 여자 640명, 어린이 550명이었다. 일본의 간섭으로 이민은 중단되었지만, 1910년과 1924년 사이에 약 860명의 한국인이 더 도착했다. 이 기간 동안 7000여 명의 이민자 중 약 40%가 기독교인이었다.



2. 조선 말기의 이민(1858-1897)

한국은 근대화되기 이전에 이주가 엄격히 금지된 나라였다. 한 나라의 인구는 국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외교관만이 나라를 떠날 수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민을 계획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정치적 혼란이 찾아오면서 농민들은 해외로 이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중 국경 통제가 약화하였고, 많은 조선인이 대거 탈출의 시대를 열었다.

185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을 시작하고 이주를 장려하면서 이민자의 수 역시 증가하였다. 1865년 어느 겨울, 13명의 농부 가족이 러시아 우수리강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다. 1860년대는 대기근이 극심하여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먹고살기 위해 4500명이 넘는 농부가 1869년까지 연해성과 만주로 떠났고, 1870년까지 2000명이 넘는 정착민이 만주의 서간도에 30개의 한국 마을을 형성하였다.

1881년 중국이 만주로 가는 이민을 허가하면서 조선인의 이민은 가속화되었다. 조선인들은 봉황성 근처 고려문(高麗門)에 정착하여 서간도를 경작하였다. 1899년 김약연이 황무지를 되찾기 위해 북간도 룡징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142명이 뒤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들은 늘어났다. 1909년 9월부터 1910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이 1,304 가구에 달했다.

만주와 연해에 간 조선인들은 절약과 저축의 습관을 기르며 부지런히 살았다.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고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해

의 조선인들은 북방한계선을 극복하고 벼 재배에 성공했다. 그들은 한인 사회를 관리할 지도자를 선출하고 자치 정부를 수립했다. 정착민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정착민의 통치 체제를 보고 본국에서도 시행되기를 열망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룬 기념비적 업적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일이다. 성경 번역은 만주와 일본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이응찬과 서경조는 1880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1882년 그의 도움으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성경인 <예수성교전서>를 출판했다.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은 황해도에 배부되었다.

1883년 일본을 방문한 신사 유럽단의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 헨리 루이스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이수정의 성경은 초대 선교사 중 한 사람인 Horace Underwood에 의해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서상윤은 황해도 소래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이처럼 조선 후기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한국 복음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대한제국의 이민(1897-1910)

조선 후기의 이민은 불법이

었지만 대한제국에서의 이민은 합법적이었다. 1897년 고종은 안팎의 여론을 받아들여 대한제국에 조선을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했다. 1901년, 새롭게 선포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황제는 5명의 한국인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냈다. 이는 노동이민 특성을 가진 최초의 근대 이민으로 주목받는다.

1902년 12월 22일, 첫 이민단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젠카이마루'에 승선하였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위해 일본 나가사키에 들른 후, 미국 선박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후로도 이민단이 속속 도착하여 1905년에 그 수가 남자 6200명, 여자 640명, 어린이 550명이었다. 일본의 간섭으로 이민은 중단되었지만, 1910년과 1924년 사이에 약 860명의 한국인이 더 도착했다.

이 기간 동안 7000여 명의 이민자 중 약 40%가 기독교인이었다. 조선인들은 도착 6개월 후인 1903년 7월 4일, 오아후섬 모쿨레이아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그들은 위안을 찾았다.

이민자들이 가야 할 곳이면 어디든 교회가 세워졌고, 누적된 교회는 39개로 늘었다. 한국인에게는 교회가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자 교육을 위한 학교였고 모임의 중심지였다. 교회 활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활

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05년, 한인들의 이민 운동이 멕시코로 그 경계를 넓혔다. 그러나 멕시코로의 이민은 사실 일본인 브로커의 사기였다. 해외 이주가 인기를 끌자 일본의 한 브로커가 유망한 한국인들에게 '꿈의 땅' 멕시코로 데려가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결국 한인들은 동멕시코의 유카탄으로 끌려가 용설란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털어놓을 교회도 지도자도 없었기에 철저하게 현지화 방향으로 이어졌다.

미국 본토로의 이민은 1903년 소수의 이민자들이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7년에는 1,037명에 이르렀다. 1903년에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었고,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한인장로교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일본계, 중국계, 미국계보다 높았다. 또한 그들은 고국의 독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에서 종교적, 민족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고려인 동포들을 모으려 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하나가 도산 안창호였다. 그는 1902년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그의 지도 아래 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권리와 단결을 위해 싸

웠고 미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는 지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

짧은 여정을 마치고 귀국한 도산은 자신이 조직한 공립협회, 한인합성협회와 연합을 결성하였고 이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했다. 이 총회는 이민자의 권리를 대변하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활발한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시기의 한인 교회는 모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지지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기금을 모금하여 대한의회를 지원하였으며 정치조직을 만들어 조선인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교회들이 특히 자녀 교육에 열광한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이 나라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여성단체들도 고국에 보낼 기금 마련에 열심이었다. 끈질기게 한국어와 교류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또한 일을 하며 미국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한편 만주 북간도의 조선인들은 모국이 문명화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모범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간도로 이민을 온 김약연과 그의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1909년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들은 '동방의 나라를 빛내자'는 비전을 가지고 명동이라는 마을을 만들었다. 그들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교육과 종교 운동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

어디에도 감하지 않는 무한한 은총

개봉 1996.01.01

개요 드라마 | 덴마크 | 102분

감독 가브리엘 액셀

수상 제42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그러하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수작이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고전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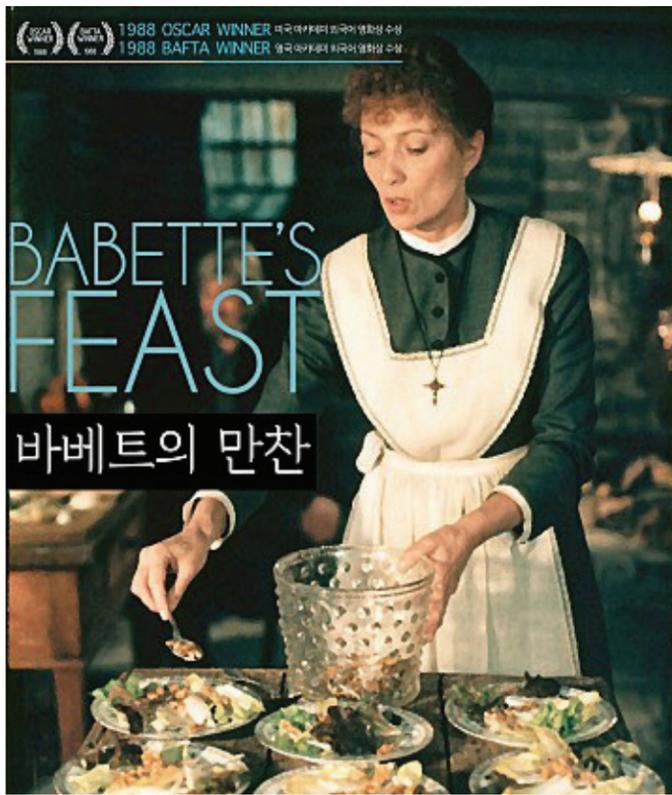
덴마크의 바닷가 근처 작고 아름다운 마을, 존경받는 목사의 딸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살고 있다.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도 두 자매는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형편에 남을 도우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두 자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 전체가 청교도적 영성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왜인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메말라 간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마르티나와 필리파는 근심한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다. 마르티나와 필리파는 처녀일 적에 남자들이 자매를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올 정도로 많은 남자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목사는 결혼을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으로 여겼고, 자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럼에도 자매의 마음을 흔들었던 남자들이 있었다.

젊은 장교 로렌스는 주둔지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로렌스에게 숙모 집으로 가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 그렇게 로렌스는 자매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잠시 지내게 된다. 그는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마르티나를 연모하게 되지만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닫고 마을을 떠난다.

필리파의 마음을 흔든 남자는 파리의 유명한 성악가 파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그러하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수작이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고전 영화다.



이다. 그는 씬을 갖기 위해 필리파가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는 마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필리파를 보게 된다. 그녀의 값진 재능을 알아본 파팽은 목사의 집으로 찾아가 필리파에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성악 수업이 시작되고, 파팽은 필리파에게 큰 명성을 누리는 성악가가 될 거라며 극찬을 한다. 그러나 필리파는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 금욕적인 삶이 익숙한 그녀에게 파팽이 알려주는 노래는 그동안 부르던 찬양과 너무도 달랐다. 결국 필리파는 더 이상 수업을 받지 않고, 파팽은 안타까워하며 파리로 돌아간다.

시간이 흘러 두 자매가 중년이 된 어느 날, 자매에게 '바베트'라는 미망인이 찾아온다. 파팽의 편지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파팽이 남편과 아이를 잃은 바베트를 맡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렇게 프랑스에

서 온 이방인 바베트는 가정부로서 두 자매와 함께 살게 된다. 바베트의 특유의 생활력 덕분에 두 자매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가 마을에 온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바베트가 마을에 온 지 14년이 흐른다. 이제 그녀와 파리와 연결고리는 복권뿐이다. 그녀의 친한 친구가 매년 복권을 사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되어 일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얻게 된다. 당첨금을 수령한 바베트는 자매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부탁의 내용은 곧 다가오는 자매의 아버지인 목사의 생신을 기념하는 만찬을 손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목사는 오래전에 소천했지만 자매와 교인들은 매년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었다. 자매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조촐한 식사를 하는 게 익숙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었지만, 14년 동안 어떠한 부탁을 한 적도 없는 바베트의 청을 거절

하지 못한다.

바베트는 요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일만 프랑을 모두 사용한다. 자매는 메추라기와 바다거북, 와인 등 본 적 없거나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 재료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불안함을 느낀다. 마르티나는 그날 악몽을 꾸는데 바베트가 마녀처럼 나와서 성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이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자매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은 단지 바베트의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지만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고백한다.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저녁 식사 중에 불경스러운 요리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한다.

그즈음에 마을을 떠났던 젊은 장교 로렌스는 장군이 되어 숙모와 함께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여 마을에 방문한다. 만찬이 있는 당일,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의 일류 요리사였던 바베트는 고급 코스요리를 대접하고, 식사 자리에서 유일하게 감탄하는 건 로렌스다. 그는 프랑스에서 여러 고급 요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베트가 내놓은 산해진미 음식이 얼마나 값비싼 고급 요리인지 대변에 알아차린다. 그는 감격하고 놀라워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대화를 자제하지만 이내 자신들도 모르게 음식을 즐기게 된다. 바베트가 혼신과 정성을 다해 내놓은 음식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심취되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에게 배웠던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긴다. 또 목사의 사역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억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을 해소하기 시작

한다. 그들은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한다. 이들이 만찬을 누리는 장면과 부엌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베트가 교차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다.

이 아름다운 동화 같은 영화는 마을 사람들의 경건주의와 로렌스 장군의 세속적인 삶을 비난하지 않는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하고 자비로운 분인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소개하고 설득한다. 예술가와도 같은 바베트가 자신의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환대할 때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회복된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어떤 설교보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멋진 식사를 마치고 나온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만찬 이후 그들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 윤택하고 생기를 지니게 됐을 것이다.

처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젊은 장교였던 로렌스 장군은 세속적인 자신과 고귀하고 경건한 마르티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던 명예를 얻었음에도 허무한 노년을 보내며 괴로워했다. 그런 그는 잊을 수 없는 마르티나가 있는 마을로 수십 년 후에 찾아와 파리에 서도 맛보기 힘든 최고급 요리를 맛보게 된다. 그리고 감격에 젖은 얼굴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한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한다. 그가 만찬 자리에서 했던 말이 이 글을 마무리한다.

"인자와 진리는 서로 만나며 정의와 축복은 서로 입 맞춘다.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은 자신이 인생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두려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뭘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대식 기자

intruthinlife@gmail.com

국내 이슬람권 선교사 네트워크, 부울경 선교포럼 개최



부울경 선교포럼 포스터

국내에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유학생, 근로자, 난민까지 약 40만 명의 무슬림이 한국교회의 이웃으로 살아간다. 스스로 한국에 온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교회의 몫이다.

‘열무김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내 이슬람권 선교사 네트워크(회장 김요섭 선교사)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국내 무슬림을 향한 다양한 복음 전도 방법을 나눈다. 이번 포럼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이슬람 선교에 관심 있는 사역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 대면 참여는 50명 한정이며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무슬림 사역 현황 파악, 무슬림 이주 난민과 유학생을 향한 효과적 선교방안 등 현안을 나누고 강의와 토론을 준비 중이다.

- ▶ 장소: 부산재송제일교회(담임 정남호 목사)
- ▶ 등록금 1만 원
- ▶ 문의: 이아급 목사(010-8550-3024)

김혁준 목사 부부(석수교회 파송, GMS), 이주민 밀집거주지, 향남작은도서관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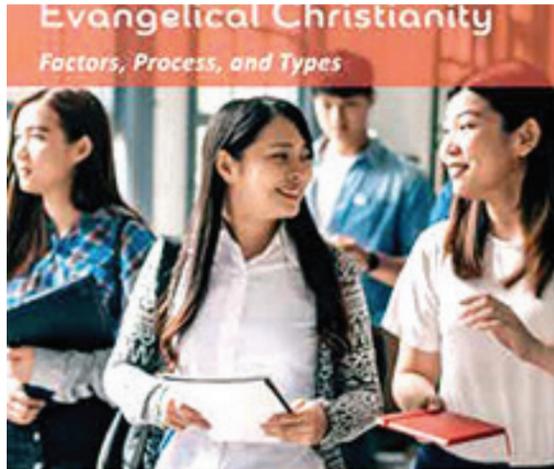


화성 향남의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화성시에는 약 6만 명의 이주민이 있으며 상당수가 향남(발안)에 거주한다. 이들 중 고려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김혁준 목사 부부(석수교회 파송, GMS)는 이주민 밀집거주 지역 안에 작은 도서관 공간을 준비하여 아이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애용을 기대한다.



SG코리아 직업/창업 개발원, 이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나눈다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전도활동

이주민 지원을 위하여 세워진 SG코리아 직업/창업 개발원(총괄 디렉터 유혜연)이 2월 28일에 개학하여 사역을 시작한다. 이주배경청소년/장년들을 대상으로 △언어(한국어 TOPIK, 실전 영어) △컴퓨터활용능력 2급 △기초 영상제작 △e마켓팅 △홈페이지 개발 △창업 교육 △개인 코칭/멘토링 등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수업이 준비되어있다. 종일반(월~금 매일 9:00~15:50) 5개월(3월~7월) 기초 과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개인의 특수 상황에 따라 과목별 선택도 가능하다. 현직 교수, 회사 CEO, 영상제작 전문가, 영어 원어민 강사들로 구성된 교육팀이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한다.

현한나 교수, 로잔디아스포라 실행위원 위촉



WELCOME!
Newly appointed to the GDN Executive Team
Prof. Hanna Hyun
GDN Prayer Coordinator

Prof. Hanna Hyun has researched Muslim diasporas settled in pluralistic societies in the U.S. and Australia. She completed her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Jackson, Mississippi and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Kosin University in 2013-2015, and worked at Sydney College of Divinity from 2016 to 2020. She currently serv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She has held the position of Director of Centre for Islamic Studies in Sydney since 2018. Her main research areas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Islamic Studies, Migration Theology, Studies of Diasporas and Refugees, Multi-cultural Church Planting and Women in Mission. She starts her new career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historic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South Korea in 2022.

현한나 교수가 로잔디아스포라 실행위원으로 위촉되어 이주민 선교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 교수는 미국과 호주의 다문화 사회에 정착한 무슬림 디아스포라를 연구하여 미시시피 잭슨 리폼드 신학교에서 문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고신대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시드니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주안대학원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 장신대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이슬람학, 이주민 신학, 디아스포라와 난민에 관한 연구, 다문화 교회 개척이다. 현 교수는 2018년부터 시드니 이슬람 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또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의 고정강사이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2기 임원 취임 및 감사예배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임원들의 모임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는 지난 24일 오후 3시에 안양 새중앙교회 선교센터 비전홀에서 2기 임원 취임과 더불어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형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허은열 공동대표의 기도, 문창선 상임대표의 “나사렛 예수(행 3:1~10)만을 드러내자” 주제의 설교, 서기원 공동대표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취임식에는 강대홍 사무총장(KWMA),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Dr. TV Thomas(로잔디아스포라), Dr. John Baxter(미국선교연합회 이주민분과), Dr. Paul Sydnor(유럽난민 Refugee Highway), Dr. Joel Wright(남미디아스포라)의 영상축사로 새로운 임원을 축하하며 KIMA의 성장을 축복하였다. 직전 공동대표였던 허명호 자문위원의 권면과 신상록 자문위원의 격려가 이어졌다. 이후 연합 축복기도의 마무리를 정노화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정혁 공동대표는 △이주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성과 일치를 증진 △이주민 선교 기본계획 수립 △국내 이주민 선교 데이터 구축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망 구축 △이주민 선교 훈련 교육 및 슈퍼비전 체계 구축 △교단과 교회별 이주민선교사 파송 및 국제협력 등 KIMA의 목표와 비전을 선포하였다.

KIMA의 새 임원진으로는 상임대표 문창선, 공동대표 박성규·서기원·정노화·이정혁·유성환·허은열, 감사 손승호, 자문위원 신상록·허명호, 사무총장 이형노, 부사무총장 문성주, 서기 남양규, 부서기 이재승, 회계 안정호, 부회계 하소미로 구성되었다.

디아스포라 신문, 미션펀드 후원계좌 개설



매월 디아스포라신문이 스태프들의 헌신으로 발송됩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발행 되는 월간 매체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선교를 최우선 가치로 발행 되는 전문 언론입니다. 또한 이주민 사역과 예배를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네트워크해 이땅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며,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뜻깊은 사역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귀한 후원을 통해 신문제작과 발송에 큰 도움이 되기에 아래의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션펀드 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 게재안내/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예배 시간만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명 가나다순)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출빌딩 5층
T 02-717-5025
H www.gwks.org

-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 영어예배 주일 오후 02:00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인도네시아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벵갈어예배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수도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0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0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0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0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중예배) 수/ 저녁 8:00
토요예배 토/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본교회) 주일 오전 11:3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이주민 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진1길 31
T 031-506-6044
H

-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APT. 505호
T 010-5541-4891
H

-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 오후 9:0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 캄보디아토요예배 토/ 오후 0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 오전 09:00

위디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
H

-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04:00
중보기도회(중) 토/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0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
H www.juan.ok.kr

-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
H

-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충청권역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www.facebook.com/groups/1616235851794814

-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 오후 8:30
성경공부 토/ 오후 7:00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전한다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들은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추가로 접수되는 순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 041-558/-9191
www.heavencc.net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 055-635-5511
www.gohyun.org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 054-471-8650
www.gumijeil.org

-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 055-333-6321
www.gloria.or.kr

-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산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 053-756-1701
www.ds-ch.org

-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 053-756-1701
www.daeyoung.org

- 외국인한글학교 토/ 오후 8:00
-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15
-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 051-515-0191
www.dgmc.co.kr

-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 055-688-0691
www.sumgim.org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 010-9747-0316
ulinch0229.wixsite.com

-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 052-242-1171
www.upcweb.net

-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 010-7493-0080
www.vfu.co.kr

- 토요예배 토/ 오후 7: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하이웃 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 054-772-0691

-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하이웃 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
☎ 051-209-0191
www.hosanna21.com

-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 010-3633-0864
www.godpleasing.modoo.at

-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 010-3604-8139

-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주일 오전 1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 061-284-8899
www.gumijeil.org

-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 베트남어 주일 오후 7:00
-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www.mokpojuan.com

-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 062-375-0400
www.wemwe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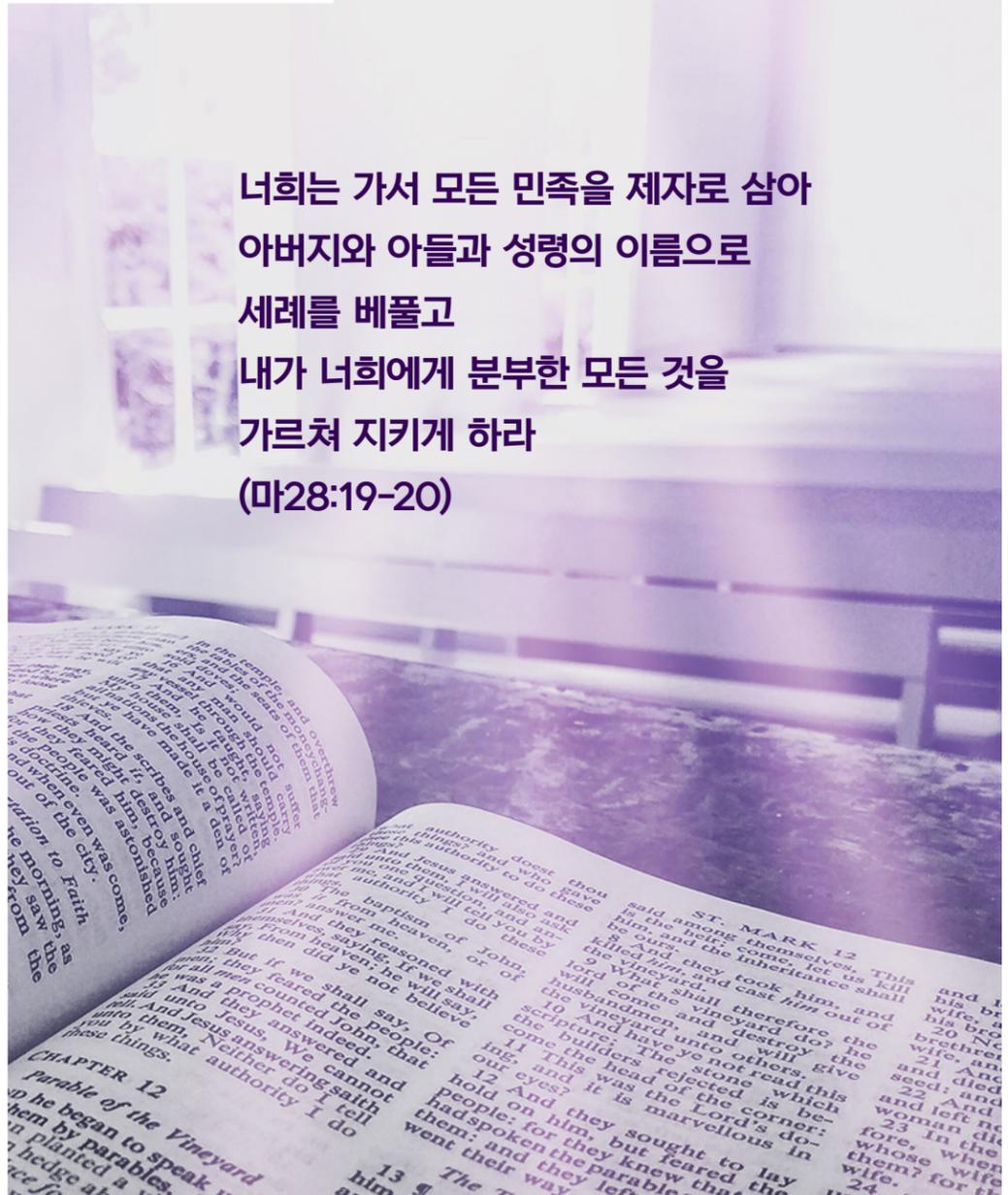
-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 063-274-3228
www.antiochia.org

-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50
-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이주민 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

meritz
메리츠화재

이주민전문보험
특화팀
031-420-6306

막대한 의료비
보험으로
준비
하세요!!



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news.kr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위대국제선교회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GALLERY

디아스포라신문 포토갤러리



로잔 디아스포라 실행위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위) 및 KIMA 임원취임예배를 축하하는 로잔 위원들(아래)



Dr. John Baxter 축사
(NextMove, Frontier Ventures)

Dr. Sam George 축사
(휘튼 칼리지, 빌라그레이험 센터)

Dr. Joel Wright 축사
(남미 디아스포라)

Dr. Bulus Galadima 축사
(로잔 디아스포라 카탈리)



영상으로 축복하는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Dr. Tereso Casino 축사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위원회 분기모임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2기 임원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조찬기도회

주안대학원대학교에 비치된 디아스포라신문

Grace Global Vision School
California CDE Registered
Member of ACSI
US Education System
K-12 Online Education Platform
Earn US Diploma

RSL System: Real Time Synchronized Lecture
LLCS: Local Learning Center Schooling

Participate in classe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and time differences
Involve your children in Learning

Education is projecting the future of Your Children and Prepare them as Future Leaders

what WE LEARN Today becomes who WE ARE Tomorrow
Excellent Knowledge (IQ), True Faith (SQ), & Good Character (EQ) by adopting ACSI's Christian curriculum and textbooks

THINK **GGVS** START a small Steps LEARN **BIG**

Grace Global Vision School
K-12 On-Line Education Platform